

# 트랙

육상 트랙경기에서 曲線走路 (곡선주로)에선 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까. 현재 국제육상연맹(IAAF)은 "트랙경기의 달리는 방향은 왼손이 안쪽으로"로 명시, 시계반대방향으로 도는게 의무사항으로 됐다. 1896년 제 1회 아테네올림픽때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았다. 당시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이 없어 개최국 규정이나 관습에 따랐다. 그러다가 1900년대 들어서자 참가선수들이 "시계방향으로 도는게 불편하다"는 항의가 잇달았다. 그래

서 1913년 국제육상연맹은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도록 명문화했던 것. 이 규정은 인간의 생리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는게 일반적 견해다. 대체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가, 왼손잡이는 왼쪽 다리가 발달한다는 것. 트랙의 곡선주로를 달릴때 곡선 안쪽으로 몸을 기울여야 하는데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왼쪽 팔다리는 작게, 바깥쪽 팔다리는 크게 움직여야 하기때문에 바깥쪽 팔다리가 발달돼 있어야 한다. 결국 이 규정은 '전세계 인구의 70%가 오른손잡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하나는 심장이 인체의 왼쪽에 있기때문에 레이스 중

몸중심이 심장이 있는 왼쪽으로 치우치게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게 자연스럽다고 한다. 육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육상선수는 총 9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미국의 칼 루이스.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계주, 멀리뛰기 등 4개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어 히틀러의 코를 납작하게한 미국의 제시 오먼스도 위대하지만 금메달 수에서 칼 루이스에 못 미친다. 1984년의 LA올림픽

에서 100m, 200m, 400m계주, 멀리뛰기서 금

메달 4관광이 된 칼 루이스는 그후 88서울올림픽, 92바르셀로나올림픽, 96애틀랜틱올림픽서도 금메달. 그는 국제육상연맹에 의해 '20세기 최고 남자 육상선수'로 선정됐다.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대구 현장실사를 마친 국제육상연맹 조사단으로부터 호평이 쏟아져 고무적이다. 대구는 2002년 한일월드컵, 2003년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체육도시다. 오는 27일에 있을 개최지 결정에서 '대구개최!'라는 낭보가 날아오기를 기대한다. 이는 전 국민의 바람이다.

## 육상선수권대회